

제 36 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鎭川소두머니 용신(龍神)놀이



일 시 : 1995. 10. 11 ~ 13

장 소 : 공주공설운동장

충 청 북 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에 자리한 소두머
니(牛潭)는 반여울(磻
灘)의 깊은 냇물인데 청
룡(靑龍)과 백룡(白龍)
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
고 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그 소두머니에는 동쪽에 청룡을 모신 청룡신당(靑龍神堂)을 서쪽에 백룡을 모신 백
룡신당(白龍神堂)을 세우고 매년 정월보름에는 동제(洞祭)를 지냈고, 가뭄에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는데, 기우제를
지낼때는 주민들이 냇물에서 도리깨질
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또 이곳 용신
에게 자식을 낳아 달라고 빌면 영험이
있다하여 무당이 삼신당(三神堂)을 세
우고 삼신굿을 해주었으니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에, 충북 진천에서는 동·서



용왕당과 삼신당에 가서 아들 낳게 해달
 라고 치성을 드리는데 이렇게 치성드리
 는 행렬이 그치지않고 사방에서 여인들
 이 와서 치성을 드리기 때문에 구경꾼들
 이 모여 시장을 이룬 것 같으며 일년 내
 내 들끓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같이 영
 험한 소두머니의 용신(龍神)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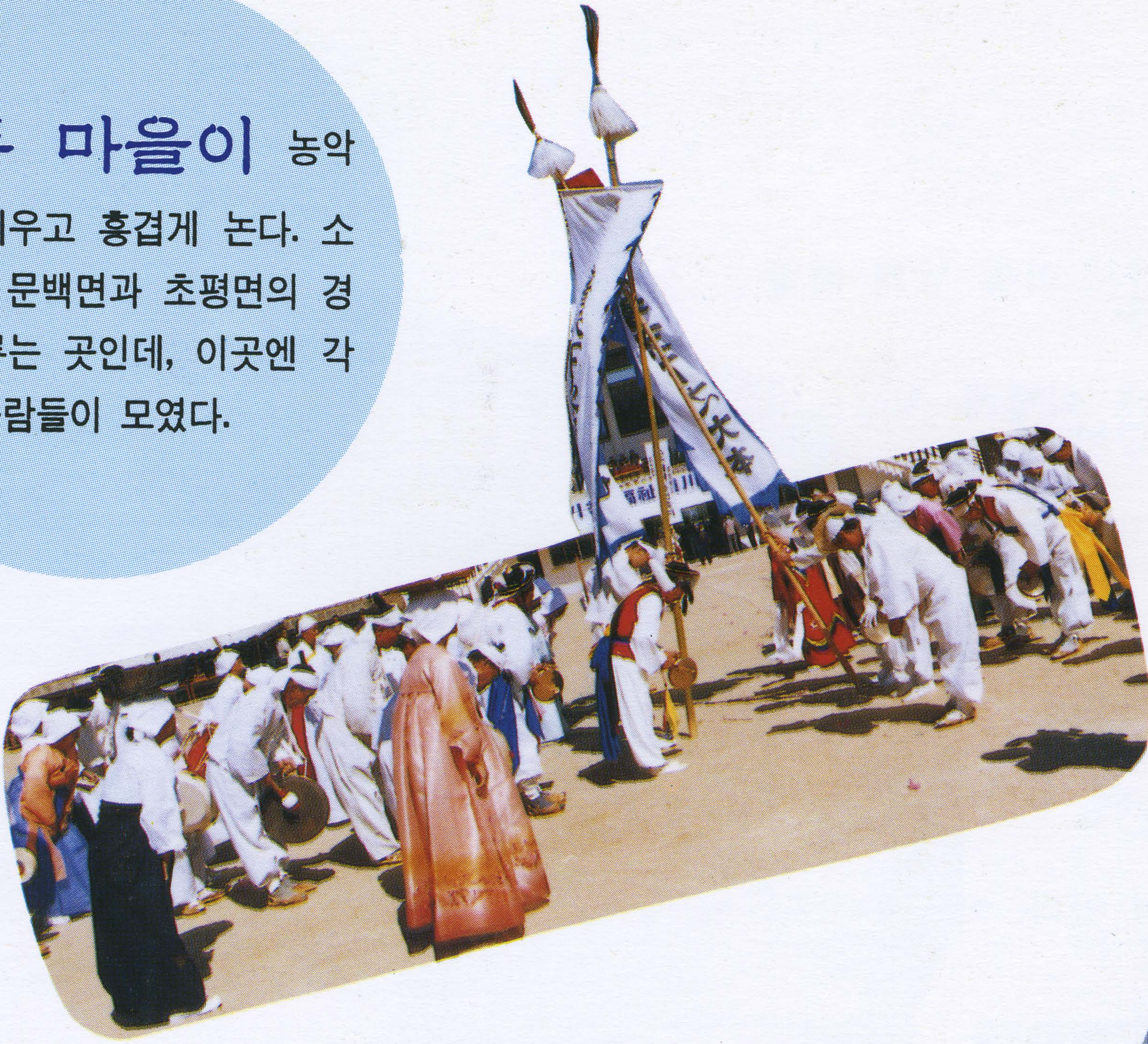
매년 10월에 무당들이 청룡신(靑龍神)과 백룡신(白龍神)을 함께 모셔 용신굿을 하는데,
 이때 여러마을 사람들이 농악을 앞세우고 농기구로 소박하게 거북을 만들어 용신놀
 이를 하면서 하루를 즐
 겼다.

이 용신놀이는 1920
 년대까지 전승되다가
 그 뒤로 사라졌는데 이
 번에 옛 모습을 찾아
 재현하였다.



1. 두 마을이 농악

대를 앞세우고 흥겹게 논다. 소두머니는 문백면과 초평면의 경계를 이루는 곳인데, 이곳엔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2. 기우제

가뭄이 들면 인근 주민들이 소두머니에 모여 물을 치면서 비를 기원한다. 부녀자들은 물가에서 키질을 하고, 남정네들은 물에서 도리깨질을 하는 것이 이곳 기우제의 특징이다.



3. 용신굿

청룡신과 백룡신을 함께 모셔다가 합방을 한다. 두 용신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만 비가 내리고 평안하기 때문이다. 이때 큰 굿판이 벌어지고 많은 구경꾼이 모인다.





4. 거북이 놀이

풍년을 구가하는 굿판이 벌어지면, 마을사람들은 농악을 치며 거북이를 만들어 앞세우고 흥겹게 논다. 이때 거북이는 생활주변의 농기구를 이용하여 만든다.



출 연 진 명 단

무 속 인

차영규 이광세 이보갑 김성실 민정순 지연근 이종순 조창순
 황인갑 이에분 임정해 윤월예 이경순 강양원 전숙자 임영숙
 김옥분 김도분 김월녀

농 악

이지환 이종환 이종관 천만성 김교무 한기범 손병철 안복용
 서호범 김종덕 이명우 이상목 신태우 채수찬 전학원 박의동
 김용희 김을기 정명화 장병우 박의종 이재복 맹경호 정상현
 이수남 박옥동 차말남 윤순식 서재순 피종현 김명석

거 북 이

김윤종 김용구 모정훈 공정남 홍성렬 원문희 김태정 이용현
 김경수 이종광 최춘일 이용환

키 끈

홍경순 권점선 곽계옥 조용순 홍경원 김용남 육언년

도 리 깨 끈

한무손 이규홍 변상철 임상직 정형구 안효석 권병희 김건배

놀 이 끈

최순남 전정숙 이순희 김순분 이영숙 한보희 김소심 오순환
 장성돌 최진예 오정희 정춘매 신정식 한재순 김덕경 권수일
 김삼순 채노순 최월규 홍불환옥 신옥 김순안 장병숙 조종현
 양순임 서숙자 윤경화 이규학 지정순 김석자 정민택 박광분
 박경희 송병하 이영남 손정태 남희정 이대희 이숙희 이상구
 박석일 강승호 박창수 박영순 이성규 이우천 이수영 이상열
 최성수 권용진 박상복 이종숙 박민옥 이순옥 조용진 박종길
 김화정 이미현 홍영수 공인규 김광현 송태용 임선영 이주옥
 박영숙

소두머리 용신놀이 재현 추진위원회

위원장 : 정 순 용 (진천문화원장)
부위원장 : 조 용 철 (향토사학자)
위원 : 박 승 은 (진천노인회장)
민 정 기 (진천노인학교장)
김 부 응 (진천교육청 장학사)
이 윤 우 (진천농공고 교사)
홍 종 건 (진천문인협회장)
마 정 자 (진천여성단체협의회장)
차 영 규 (진천군 경신회장)
박 원 오 (진천군 문화공보실장)

고증 및 지도

김 영 진 (청주대학교 교수)
임 동 철 (충북대학교 교수)